

 기획재정부		보도자료	
보도일시	2021. 11. 11.(목) 15:30	배포일시	2021. 11. 11.(목) 15:00
담당과장	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 박지훈 (044-215-4570)	담당자	김상엽 사무관 (ksy7715@korea.kr)
	기획재정부 요소수 대응 실무지원단 문경호 (044-215-2550)		주해인 사무관 (haein1216@korea.kr)
	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최진영 (044-200-2211)		안혜리 사무관 (gloria7@korea.kr)
	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 염보영 (02-2100-7675)		천성희 사무관 (shchun19@mofa.go.kr)
	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윤진호 (044-205-4110)		서호성 사무관 (hosung91@korea.kr)
	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이종태 (044-201-1891)		서정우 사무관 (quepasa@korea.kr)
	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정석진 (044-203-4910)		임경섭 사무관 (kslim00@korea.kr)
	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정성훈 (044-202-2550)		박준희 사무관 (swer21@korea.kr)
	환경부 교통환경과 황인목 (044-201-6920)		송태곤 사무관 (stgtoto1@korea.kr)
	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조태영 (044-201-4027)		김병채 서기관 (bcheck@korea.kr)
	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허만욱 (044-200-5710)		양도형 사무관 (ydh87@korea.kr)
	국세청 조사2과 김승민 (044-204-3602)		정해동 사무관 (jung0506@nts.go.kr)
	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한민 (042-481-7810)		조광선 사무관 (kwangseoncho@korea.kr)
	조달청 원자재비축과 노배성 (044-215-2770)		전연수 사무관 (jys21c@korea.kr)
	경찰청 장비담당관 김성구 (02-3150-2036)		김종애 경감 (k17165@police.go.kr)
	소방청 장비총괄과 김문용 (044-205-7680)		권영철 소방경 (sakyc@korea.kr)

제4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

- ☐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.11일(목) 8: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*를 개최하였음

* 국무조정실, 외교부, 행정안전부,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자원부, 환경부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, 국세청, 관세청, 조달청, 경찰청, 소방청 등 참석

-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 및 국내 확보 물량의 조속한 배분 계획, 중국, 베트남 등 해외 물량 확보 동향 및 추진 상황을 중점 점검하고,
 - ‘긴급수급조정조치’ 시행에 따른 세부조치, 매점매석 합동 단속 결과 등 요소수 수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요 조치들을 논의하였음
- 첫째, 정부는 해외로부터 확보한 물량 및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국내 보유 물량 등을 긴급한 수요처로 조속히 배분할 계획
- 먼저, 현장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민간 수입업체 보유 요소 차량용 700톤은 11월 10~11일 이틀에 걸쳐 국내 대형 생산업체로 이송되었으며, 금일부터 생산에 투입하여 요소수 약 200만 리터를 생산할 예정
- * 요소수 200만 리터는 사업용 화물차(14.3만대), 노선·마을·특수버스(2.2만대) 월 소요량의 약 10일 정도 운행분에 해당
- 생산된 차량용 요소수는 내일부터 버스·청소차 등 공공 목적에 약 20만 리터를 우선 공급하고, 나머지 물량은 화물차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
- 버스·청소차 등 공공목적의 경우 생산업체로부터 광역 지자체별 거점 차고지(2~3곳)를 통해 각 버스업체 등에 공급될 예정이며,
 - 화물차의 경우 생산업체로부터 화물차 사용빈도가 많은 100여개 주유소로 공급하여 화물차들에게 공급될 계획
- 한편, 해외로부터 확보한 물량은 신속히 국내로 반입됨에 따라 정부는 긴급한 수요처 중심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
- 호주로부터 수입되는 요소수 2만 7천 리터 중 4,500리터는 민간 구급차에 우선적으로 내보낼 계획

- 호주 수입 요소수 2만 7천 리터는 금일 17:30 김해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며, 인근 창고에 보관 후 내일 아침 소분되어 4,500리터는 전국 시·도청으로 공급되어 민간 구급차*로 우선 배분하고, 나머지 물량은 소분창고에 보관하면서 추후 정해지는 긴급 수요처로 공급할 계획

* 전국적으로 민간 구급차는 약 3,800여대이며 이중 요소수 사용 차량은 약 2,300여대 규모

- 이에 따라 민간 구급차는 약 4개월 분량의 물량을 확보

* 소방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 구급차는 이미 3~4개월치의 재고분이 확보된 상황

- 아울러, 어제 오전에 중국에서 출항한 N사의 산업용 요소 2,700톤은 11월 13일(토) 여수항에 도착 예정이며, L사의 차량용 요소 300톤(요소수 환산시 90만 리터)은 11월 18일 출항 예정

□ 둘째, 베트남으로부터 요소 및 요소수 추가 물량을 확보하였음

- A사는 베트남으로부터 산업용 요소 기존 5천톤에 3천톤을 추가 계약하여 총 8천톤을, B사는 차량용 요소수 기존 100만 리터에 25만 리터를 추가 계약하여 총 125만 리터를 확보

□ 셋째,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「긴급수급조정조치」를 11월 11일부터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발표하였음

- 동 조치 시행과 동시에 요소·요소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내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,
- 요소·요소수 전 밸류체인 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며, 향후 수급 리스크를 사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- 향후 요소 수입·판매업자는 당일 수입·사용·판매·재고량 및 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 등을 매일 익일 정오까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로 신고해야 하며,
 - 또한, 요소수 생산·수입·판매업자는 당일 생산·수입·출고·재고·판매량 등의 정보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전산시스템에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
- 특히, 긴급한 요소·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요소·요소수 수입·생산·판매업자에게 “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”하는 조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됨에 따라
 -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과 동시에 첫 조정명령으로 환경부는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
 - * 단,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(건설현장, 대형운수업체 등)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
- 또한, 판매처(주유소)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(量)도 제한되어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, 그 외 화물·승합차, 건설기계,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*하며,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
 - * 단,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
- 정부는 사업자들의 조정명령 이행을 돕기 위하여 원자재, 인력, 운송, 신속통관 등에 대해 물적·인적·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,
 - 요소수 수입·생산·판매업자들이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몰라서 불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문, 이메일, 현장 점검단 파견 등을 통해 일일이 안내하는 등 홍보에도 노력할 계획

- 또한,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계획

* 사업장 현황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 (「물가안정법」 제25조,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)

- 넷째,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외로부터의 물량 확보가 가시화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해운협회·선사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요소 수입 국가, 항만, 형태 등이 결정될 경우 신속하게 맞춤형 운송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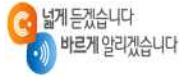
- 수입업자가 운송계약을 기 체결하여 선사가 결정된 경우에는 요소 수입 선박의 국내 항만 입항 시 선석 우선배정, 신속 하역 등을 통해 입항 및 하역 시간 최소화하고,

- 운송계약을 미 체결하여 선사·선박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적선사와 협의하여 수입지 인근 항만의 가용선박을 긴급 지원하고, 선박 확보 애로 시 국가필수선대(전체 88척 규모)* 투입 발동을 검토

* 전시 등 비상사태 및 해운항만기능 중대 장애시 주요 물자의 안정적 수송을 위해 국가필수선박을 지정·운영(88척)

- 한편,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31개조의 관계부처 합동 단속반은 11월 8일부터 이루어진 3차례 점검에서 3건의 요소수 매점 매석 사실을 확인*하였으며, 조속히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, 향후에도 철저한 단속을 통해 요소수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갈 계획

* (11.8) C업체(부산) (11.9) D업체(부산) (11.10) E업체(인천)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